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재해예방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열풍기 사용」으로 질식사고를 예방합시다.

- 양생작업 시 열풍기를 우선적으로 사용 (전기열풍기 사용 권장)

※ 등유방식의 열풍기는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 부득이하게 갈탄, 숯 등 연료사용 시 작업장 내부 일산화탄소 측정

- ▶ 갈탄(숯탄) 보충 및 양생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출입관리(일산화탄소 농도 기준 초과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내부 출입)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을 위해 갈탄·숯불 등의 연료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최근 4년간('19~'22) 12건 발생, 4명 사망, 25명 부상]

질식사고 주요원인은 보온양생 시 사용하는 갈탄, 숯불 등의 연료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함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부로 들어갔다가 순간 질식되고 사망하게 됨.

*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어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며, 양생작업장 내부는 밀폐구조로 위험성이 매우 높음

건설현장 양생작업 난방연료 위험성

구분	열풍기	갈탄(무연고탄)과 숯	고체연료
사진			
질식 위험성	전기열풍기: 위험없음 등유열풍기: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	매우 높음 (다량의 일산화탄소 발생)	보통 (약간의 일산화탄소 발생)

건설현장 양생작업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 ① 열풍기를 우선적으로 사용 (전기열풍기 사용 권장)

※ 등유방식의 열풍기는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 ② 갈탄이나 숯 등 연료방식의 양생설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출입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
▶ (권장) 양생작업장 내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감지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양생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발생 특성을 고려

- ③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실시

갈탄보충 및 양생 상태 확인

- ① 사전작업허가를 받은 작업자만 출입하고,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출입관리하세요.

- ② 양생공간 내부로 들어갈때는 가스농도측정기를 휴대하여 일산화탄소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세요.

※ 일산화탄소 농도기준 초과 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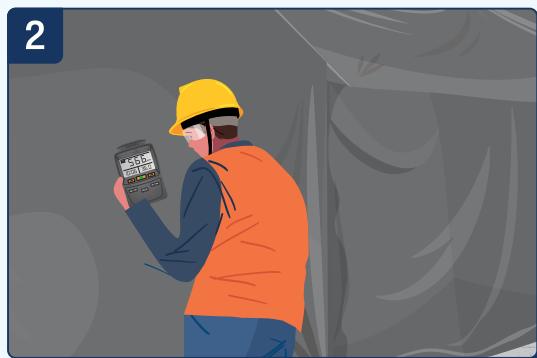
- ③ 작업장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비치하세요.**
(위험시 착용!)

※ 환기가 가능한 경우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공기 수준 확인 후 출입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장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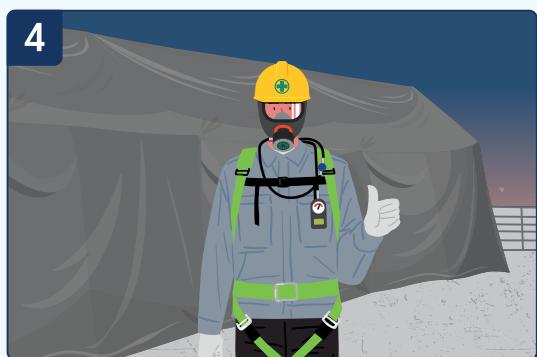
양생작업 전 양생공간 내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면적을 고려하여 양생작업 내부에 최소 2대이상 설치)
감지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양생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발생 특성을 고려



작업자 양생내부 출입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여 적정농도인 경우 출입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여 양생작업장 내부에서
작업 중 경보음 울림시 작업자 양생작업장 밖으로 대피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양생내부 출입

양생 작업장의 일산화탄소 감지 장치 종류



- 일산화탄소 가스 농도를 외부에서 확인 가능(휴대폰, 모니터 등)
- 기준농도 초과 시 경고음이 발생
- 내부출입전이나 내부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농도 확인 가능
※ 적극 권장 모델



- 일산화탄소 가스 기준농도 초과시 경고음이 발생하는 방식
- 외부에서 농도 수치 확인 불가
- 내부 작업 중 경보음 인지시 대피

비교적 저렴



- 일산화탄소 가스 기준농도 초과시 경고음이 발생하는 방식
- 외부에서 농도 수치 확인 불가
- 내부 작업 중 경보음 인지시 대피

비교적 고가

* 산안법 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 가능

우리공단에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뿐만 아니라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질식사고 예방장비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